

“꿈을 갖자”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상이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다. 협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은 무엇일까. 화재예방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다. 그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협회 구성원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협회는 우리들 기술인에게 어떤 꿈을 갖도록 해주었는가.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한다. 개개인의 꿈이 소속된 직장업무와 관련된 것 이면 그 조직은 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조직은 와해되고 말 것이다. 협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부장이 되는 것인가, 사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방재와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Surveyor나 Underwriter가 사회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땀 흘려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것일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주어진 기본업무에 안주하면서 주변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우리 누구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에게 누가 그 변화를 가져다 주겠는가. 외부여건과 윗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꿈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그 생각들을 한 데 모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나 관행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한계상황을 극복하려는 확고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남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남이 한 일의 잘 잘못만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꿈을 갖자.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미소가 있다. 집값이 올라도, 주식값이 좀 떨어져도 초연할 수 있는 여유, 사회생활에서 좀 뒤진다해도 항상 간직할 수 있는 미소는 꿈이 있는 자만의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궁색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꿈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꿈을 간직한 채 거센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유히 정해진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 자,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꿈을 가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생활에 충실하자. 우리가 추구하는 화재예방이라는 숭고한 목표도 자신의 꿈을 가꾸기 위해 생활하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둘째, 자기개발에 노력하자. 평생 한 두번 찾아온다는 기회, 평소 자기개발을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는가.

셋째, 목표를 세우자. 아무리 원대한 꿈도 수 많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전을 갖자!

창립 당시, 입사 당시에 간직했던 꿈과 낭만을 다시한번 일깨워 후배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2000년대의 꿈을 가꾸어 보자.